

대선 앞두고 극장가 '정치바람' 거세다

DJ 모티브 설경구 주연 '킹메이커' 다큐멘터리 '...국민여러분' 전두환 다룬 다큐 '전투왕', 문익환 목사 조명 '늦봄 2020' 상영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극장가에도 '정치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에는 극영화와 다큐 등을 통해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펼쳐지는 선거판 경쟁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고 역동성을 부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와 다큐멘터리이다.

오는 26일 개봉하는 영화 '킹메이커' (감독 변성현)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을 지닌 정치인 '김운범'과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렸다. 야당 정치인 김운범은 설경구가, 전라계 서창대는 이선균이 역할을 맡았다. 영화는 지난 196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국회의원 당선부터 이후 첫 대통령 후보가 된 1970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 함께 했던 참모 엄창목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영화는 김운범에게 그와 뜻을 같이하고자 한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찾아오면서 펼쳐진다. 판세가 열세였지만 서창대의 뛰어난 선거 전략으로 김운범은 선거에 연승하며 대선 후보에까지 오른다. 당선에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서서는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어느날 김운범 자택에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로 서창대가 지목되면서 두 인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특히 영화는 화려한 캐스팅으로 눈길을 끈다. 박인환부터 이해영, 김성오, 전배수, 배종옥 등 배우들이 면면은 스크린을 압도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김진홍 감독의 다큐멘터리 '존경

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개봉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면 언급했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은 그가 평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문구다.

이번 다큐는 '킹메이커'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던 1970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DJ의 일생은 그를 상징하는 '인동초'만큼이나 강인하고 드라마틱하다. 영화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수가 되고 3전 4기 끝에 정권교체를 이루며 대선에 당선된 1990년대까지를 아우른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인동초의 삶을 살았던 DJ에게 국민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화를 통해 그려진다.

'늦봄' 문익환(1918~1994)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만날 수 있다. 목사이면서 통일운동가, 사회운동가였던 문 목사를 다룬 '늦봄 2020'은 내달 10일 관객을 찾아간다.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문 목사의 삶은 우리 근현대사의 굴곡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다큐는 '2020년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전주MBC의 동명 다큐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만주 용정에서 태어난 문 목사는 운동주, 송몽규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또한 평양 숭실학교에서 장준하를 만나 친구가 됐다. 그러나 일제 탄압으로 젊은 시절 운동주와 송몽규를 잃고 만다. 더욱이 유신정권 폭압으로 장준하마저 잃고 나자 50대 후반 늦은 나이에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며 여러 차례 투옥되기도 했다. 그의 호 '늦봄'은 늦은 나이에 민주화 운동에 뛰어 들었다는 의미



대선을 앞두고 극장가에도 '정치바람'이 거세다. 사진은 영화 '킹메이커'



다큐멘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를 담고 있다.

이번 다큐는 현존하는 육성자료로 문 목사의 소리를 복원해 그 시대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내달 10일 개봉하는 '나의 촛불'은 지난 2016년 촛불 시위를 모티브로 한다. 배우 김의성과 기자 주진우가 공동 감독을 맡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에 맞서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외쳤던 당시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을 추적한 다큐도 이목을 끈다. MBC 기자 출신 이상호 감독이 기자로서 전두환을 추적해온 시간을 담은 '전투왕'은 내달 18일 공개된다. 당초 지난해 12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전두환 사망으로 공개가 미뤄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진석 철학자 초청 올 첫 인문학 강연

연경인문학문화예술연구소, 14일

연경인문학문화예술연구소(대표 석연경·순천시 중앙2길 11-19)가 오는 14일 오후 3시 최진석 (사진) 철학자를 초청, 올 첫 인문학 강연의 문을 연다.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번 강연 주제는 '산다는 것'. 이번 강좌는 강연자의 일방적으로 강연이 아닌 참가자와의 밀착력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교수는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또한 더불어 사는 것의 의미 등을 참가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강의 참가 희망자는 신청(010-3638-6381)하면 된다.

한편 철학자 최진석은 베이징대학교 대학원 도가철학 박사로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새마을신문' 대표로 '책 읽고 건너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인간이 그리는 무늬', '탁월한 사유의 시선' 등 다수가 저서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일까지 단원 공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박주현)이 2022년 함께할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꿈과 재능이 있고 용모 단정한 광주시에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이면 응시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다.

응시원서와 자유곡 악보 1부를 이메일(5291125@naver.com)로 제출하면 되고, 실기 심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에게는 공연 수당지급, 단복 및 간식 제공, 공연 참여시 봉사활동 인증, 음악캠프 및 각종 워크숍 비용 지원, 음악&영어 교육 프로그램 무료 수강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2022년에는 영어 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추진으로 오페라를 활용한 음악, 언어, 연기, 안무 등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한다.

연습실정은 학기 중 매주 화, 목(오후 6-9시), 방학 중 매주 월-금(오전 10시-오후 1시)이다. 문의 062-613-824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담담함과 간결함, 그리고 여백의 미학

강숙자 시인 '찾물이 끓어오를때'

"생을 살아가면서 도처에 숨어 있는 크레바스 같은 시기를 겪지 않은 이가 있을까. 어떤 연유로 인하여 덮여버렸던 시간이었지만 그것도 나의 계층으로 자책해본다. 그간 묵혀 두었던 나의 발자취 지금 뒤져서 보지 않는다면 더 후회로 남을 것 같기에..."

해남 출신 강숙자 시인의 신작 시집 '찾물이 끓어오를 때' (한림)는 제목 그대로 잔잔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배어나오는 작품집이다. 시낭송가이기도 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여백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간결함이 묻어난다.

작고한 문명란은 제자인 강 시인의 시에 대해 "그의 사회활동 하루하루가 시와 관련을 갖고 있어 행동과 시의 일치라는 그 너머의 문화관이 엿보이는 바 '봉사적 휴머니즘과 예술적 서정시의 만남'이라는 실용적 문학을 거론할 만 하다고 평한 바 있다.

강 시인의 시는 참여적 성실성과 아울러 존재의

무상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의 이면에는 찻물 같은 담담함과 고요함 그리고 단아한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다.

"찾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그 기다림은/ 그 향의 깊이만큼/ 마음 속의 고요도/ 차오른다// 나의 존재의 집에서/ 상실된 자아는/ 문득/ 내 생의 언저리에 감도는/ 긴장만큼이나/ 진한 빛깔의 향기를 토해낸다..."

표제시 '찾물이 끓어오를 때'는 전체 시집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화자의 성정과 심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 세계의 지향점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강 시인은 한국문학예술작가회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지금까지 시집 '가을' '너가 내게로 온다'를 펴냈다. 현재 서은 문명란 문학연구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순사건 다룬 공연 온라인 공개

전남도립국악단, 13일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상영

여순사건의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은 13일 오후 5시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지난해 12월 초연한 정기공연 여순 가무악희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하이라이트 7편을 상영한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공연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과 애도이며, 73년간 침묵을 강요당한 채 살아온 유가족들의 억눌린 슬픔을 공감하고 보듬어낸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단순 종합극이 아닌 노래, 춤, 연주, 연희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해 눈길을 끌었으며, 극 중반에는 '눈물꽃' 노래와 함께 무대 전면에 미디어아트를 도입, 극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표현했다.

이밖에 1949년 10월 순천 시골마을에서 있었던



전남도립국악단의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실제 사건을 유복자 아들이 관객과 함께 아버지의 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그린 소리극 '불청객이 왔다'와 무용극 '기억의 자살'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소병철 국회의원의 특별강연 '73년의 묵연 한, 이제 소리를 내자'를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문의 061-981-692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p>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p> <p>☎ 062)223-0177, 010-3642-7320</p>	<p>(주)대신수산유통</p>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p> <p>☎ 062)233-0067, 010-3634-7264</p>	<p>(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p>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p> <p>☎ 062)573-3112, 010-8221-3119</p>	<p>문화결혼상담소</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p> <p>☎ 062)529-0315, 010-3606-5632</p>
<p>꽃게랑 약선반찬 전집</p>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p> <p>☎ 010-2315-2058</p>	<p>금남로 사주 카페</p>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p> <p>☎ 010-7495-1577</p>	<p>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p> <p>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칠팔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p> <p>☎ 061)337-7987, 010-7732-6955</p>	<p>면쟁이</p> <p>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p> <p>☎ 010-5459-9664</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필스제화</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굵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p> <p>☎ 010-4755-9294</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p>무크 광주세정점</p> <p>광주시 서구 성내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쁜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p> <p>☎ 062)370-9151</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남도철학원</p> <p>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p> <p>☎ 062)522-9653, 010-8645-2254</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다흥치마 한정식 전문</p>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p> <p>☎ 062)233-9952, 010-4469-0360</p>
<p>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p>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준비</p> <p>☎ 062-225-4445, 010-3603-3064</p>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한국기원</p> <p>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p> <p>☎ 010-8610-8373</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